

찾아오는 길



버스 이용 시

- 낙성대역 관악02 마을버스
- 봉천사거리 혹은 서울대입구역 5511, 5513
- 신림사거리 혹은 신림역 5516

지하철 이용 시

-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4번 출구 관악02(마을버스)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5511, 5513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문의 : (02) 880-7240



전기·전자·컴퓨터 분야 미래 7대 기술 강연회

일시 _ 2017년 1월 17일(화) ~ 18일(수)

장소 _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신공학관 301동 118호

주관 _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 컴퓨터공학부

후원 _ 동부문화재단·동아시아언스



초대의 말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에서는 2016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동문, 교수,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등의 제안을 받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기·전자·컴퓨터 분야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 7대 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기술들은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문화도 변화시킬 핵심 기술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잠재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큰 관심을 갖고 공부하여 이 분야의 연구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의 교수진이 7대 기술에 대한 자그마한 강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강연회는 녹화되어 인터넷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강연을 통해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관련 기술에 대한 통찰과 비전을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다면 더 없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찬을 해 주신 동부문화재단과 동아사이언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 it.”

– Alan Kay

“The future always belongs to the younger generation.”

– Nicolaas Bloembergen

감사합니다.

2017. 1.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장 **이병호**

컴퓨터공학부장 **박근수**

프로그램 안내

1st DAY | 1월 17일(화)

시간	프로그램
13:30	사물인터넷 최성현 교수(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사물들을 연결하여 실제시스템 및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빌딩, 스마트시티, 우주산업 등에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기반 기술
	맞춤형 건강의료기술 서종모 교수(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유전체를 포함한 다양한 생체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에 딱 맞는 질병 예방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정밀의학 기술로, 인간의 건강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15:00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조남익 교수(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 Cyber-Space에서 현실을 재현(VR)하거나 Cyber-Space의 정보를 현실에 추가(AR)하는 기술로, 게임, 모의훈련, 엔터테인먼트, 영화,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응용에 적용가능

2nd DAY | 1월 18일(수)

시간	프로그램
13:30	인공지능 장병탁 교수(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인간 신경망 및 두뇌를 컴퓨터로 실현하는 기술로, 컴퓨터비전, 자연언어 처리, 로봇제어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 기술로 미래 모든 지능형 서비스의 핵심
	빅데이터 강유 교수(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센서, 개인, 환경들로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여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엄청난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14:30	로봇 이재희 교수(서울대 컴퓨터공학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지능형 로봇 기술. 특히 생체모방로봇은 인간, 동물 등 생체 특유의 구조, 메커니즘, 다양한 기능을 모사하는 로봇으로 기존 로봇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융합 기술
	자율주행자동차 서승우 교수(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자동차 기술은 에너지, 물류, 로봇틱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큰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통사고를 대폭 줄이고 노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편리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며, 공유 경제 등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추후
인터넷
강의